

한·중 공동주택의 생활환경요인을 통한 단위평면 비교 연구

- 서울과 상하이 전통, 근대, 현대 공동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partment Unit Plans According to the Living Environment Elements of Housing in Korea and China

- Focused on Apartment cases in Seoul and Shanghai -

Author 양 비 Liang, Fei / 정회원,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계획설계전공 공학석사
윤혜경 Yoon, Hea-Kyung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전임강사, 건축학박사
박현수 Park, Hyeon-Soo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설계전공 부교수, 건축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eek a direction of development in apartment interior planning method, considering residential condition and historical planning schemes in South Korea and China. In this study, South Korea and China's traditional housing and modern apartment unit was studied to identify environmental attributes of residence. For Korea, Banga, where upper class residents lived, and modern urban Hanok were chosen to be analyzed. For China, two types of housing were studied: Sahapwon, original form of China housing, and Yinong house which is a typical Shanghai house. First, the elements of living environment in two major cities: Seoul and Shanghai was defined to analyze factors of traditional houses in both cities. Depending on those factors, relationship among traditional and modern housing typ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cusing on unit plan case studie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living environment in South Korea and China.

From this stud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apartment plans in Seoul and Shanghai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ir residential styl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and lifestyle factors. In Seoul's apartment, spacial composition and movement lines were mainly formed around the public space in Seoul, while public space of living and dining room was located at housing entrance area in the Shanghai's residential system, configuring narrow form of housing unit. In respect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 unit plan of rectangular form in Seoul was more efficient in day lighting and wind circulation than the unit plan of narrow form in Shanghai. It was also found that cultural differences of stand-up and seat life style influenced on the composition of unit plans in Seoul and Shanghai.

Keywords 공동주택, 단위평면, 비교연구, 생활환경
Apartment, Unit Plan, Comparative Study, Living Environmen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주택은 인류의 생활과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형성된 대표적인 건축유형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천해왔으며, 거주자의 삶을 담은 생활의 터전으로서 한 시대의 문화를 표출하고 있다. 시대성을 반영하는 사회구조의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주택유형은 그 지역 및 사회를 특징짓는 문화적 산물로서 연구와 분석의 주요한 대상이다.

한국과 중국은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와 지속적인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교류에 의해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폭넓고 다양한 교류는 19세기 말 청일전쟁 이후 단절되었고, 일제 강점기와 내전의 혼돈기를 통해 한국은 자본주의로, 중국은 사회주의로 체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이한 체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현대화는 양국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과 상하이가 경제와 문화가 집약되는 국제적 도시로 발전하게 하였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생활환경과 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hspk@konkuk.ac.kr

본 연구의 대상지인 서울은 남한 전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약 1/5인 1,04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¹⁾ 또한 중국의 상하이도 공업 규모가 전국 총생산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도시이다.²⁾ 상하이는 지정학적으로도 세계무역의 중요지로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해외 기업들의 주요 거점지로 발전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인 서울과 상하이의 공동주택을 연구의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주택에서 나타나는 생활환경 요인을 분석의 틀로 정하여 공동주택의 단위평면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도시의 주택에서 나타나는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적 요인을 관찰하고, 이러한 요인이 전통, 근대 및 현대 공동주택 단위평면에 어떻게 반영되고 변형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공동주택 단위평면을 분석하여 발견된 유사점과 차이점의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주거 문화와 주택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조망하고, 향후 서울과 상하이의 주거발전을 위한 건축계획적 관점에서의 상호 보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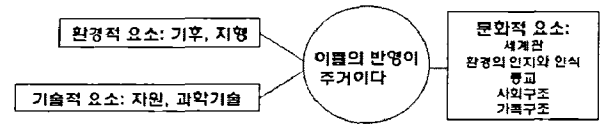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주거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전통주택 유형과 함께 현대 공동주택 유형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한국은 한옥 중에 상류 계층이 주로 거주했던 반가(班家)와 근대 도시형 한옥을 선택하였고, 중국은 중국 주거의 원형인 사합원(四合院)과 상하이를 대표할 수 있는 민가 이농주택(里弄住宅)을 정하였다. 현대 공동주택의 사례 선정은 서울과 상하이에서 최근 5년 안에 분양된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되, 세대 수와 평형이 유사한 것을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생활환경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고, 한·중 전통주택에 나타나는 생활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둘째, 도출된 요인에 따라 전통과 현대주택의 관계성에 대하여 단위평면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중 주거생활 환경을 고찰하고 주택 평면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상하이 주거발전을 위한 건축계획 측면에서의 상호보완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

2. 주거생활환경에 대한 이론 고찰

주거생활환경은 인간의 주생활(住生活)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환경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주택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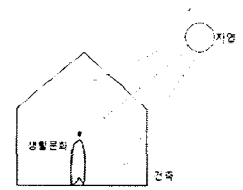
와 주택과 관련된 여러 조건을 말하며 인간이 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외부조건을 의미한다.



<그림 1>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³⁾

주거 생활환경에 대하여 라포포트(Rapoport, 1969)는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소로 생활양식을 들고 있다. 생활양식은 문화, 민족정신, 세계관, 국민성 등의 구성요소들이 복합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알트만(Altman, 1980)은 주거형태를 단독적인 요인이 아닌 기후, 자연자원, 사회적 배경 또는 종교 등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결과로 보았다.⁴⁾

생활환경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유형·무형 요소의 일체를 환경이라 할 때 인간의 생활환경은 생산과 휴식이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개념이다.⁵⁾ 좁은 의미로는 물리적인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인간



<그림 2> 생활환경 정의 개념도

의 생존을 위해 건강과 삶에 긴밀한 생활의 결합을 뜻한다. 즉, <그림 2>와 같이 주거생활의 환경이란 인간에게 필수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자연적 환경, 인간의 생활을 담는 공간인 주택, 그리고 주택에 담겨 있는 생활을 통해 이루어진 생활문화가 어우러져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체계는 <표 1>과 같이 두 도시의 주택 평면에서 나타나는 생활환경적 요인을 주거양식, 자연적, 생활 문화적 요인의 3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한국과 중국 주택에서 나타나는 시대별 양식에 적용하여 현대 공동주택 단위평면에서 유지, 변형, 또는 소멸되어진 요소들을 찾아 비교 분석하였다.

<표 1> 분석 체계

	한국	중국	분석 체계
전통주택	반가	사합원	주거양식- 공간배치, 동선체계
근대주택	도시형한옥	이농주택	자연- 자연통풍, 발코니, 가로세로비, 남향
현대주택	서울 공동주택 단위평면	상하이 공동주택 단위평면	생활문화- 현관, 거실, 침실, 주방 (식사실)

3. 공동주택에 미치는 생활환경요인 분석

3.1. 주거 양식적 요인

1) 서울특별시의 지리,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검색어: 서울특별시
2) 상하이 시의 경제규모,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검색어: 상하이 시

3) 주거학연구회,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2005, pp.91-92

4) 주거학연구회,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2005, pp.91-92

5) 생활환경의 사전적 의미, 두산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1) 공간배치

서울과 상하이의 현대 공동주택은 서양의 주거양식을 도입하여 서구화된 특성을 보인다. 서울의 공동주택은 각 실이 거실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거실 중심형이 많으며, 상하이는 공적 공간(LDK)과 사적 공간(욕실, 침실, 다용도실, 발코니)의 분리형으로 대비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두 도시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각각의 생활환경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공동주택 단위평면은 거실중심의 개방적 공간 구성 방식을 주로 따르고 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공동주택이 도입된 후 한국의 기존 계획 개념과 서구의 계획 개념 사이의 조정을 거쳐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는 서울의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평면계획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한국의 전통주택인 반가는 대문과 마당을 지나 대청을 거쳐 방으로 진입하게 계획되어, 각 실 공간들의 중심에는 마당과 대청이 있다. 또한 근대화, 도시화에 의해 변형된 도시형 한옥에서도 마당과 대청을 중심으로 각 실들이 연결되는 구도로 되어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마당과 대청이 단순히 공간을 연결하는 기능 뿐 아니라 가족의 공동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가족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의 중앙에 배치되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큰 식재가 없는 마당과 대청을 통해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오랜 생활환경

과 관습은 현대의 공동주택에 영향을 주어 장방향의 거실 중심형 단위평면이 정착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상하이의 단위평면은 거실과 주방 등의 가족공용공간과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이 분리되는 구성을 보이며 세장형을 띠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미국식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구성이지만 상하이의 전통주택을 분석해보면 사합원과 이농주택의 공간구성 원리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상하이의 전통주택인 사합원에서는 사적 공간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합원과 이농주택은 중심축에 공적 공간이 배치되고 양 옆에 사적 공간이 배치됨으로써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이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배치의 구조상 공적 공간을 지나서 사적공간으로 접근하는 구성을 보인다. 또한 중규모 이상의 사합원은 중앙의 청방을 기준으로 가족중심의 '내(內)'적인 공간과 사회적인 '외(外)'적인 공간이 구분되었다. 단위 건물에서도 '당(堂)'과 '실(室)'로 구성되어 가족의 공용공간인 '당'을 통해 건물로 진입하여 개인 공간인 '실'로 연결되는 구성을 보인다. 이렇듯 상하이의 전통주택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하는 좌우대칭의 특성뿐 아니라 사적 공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공간을 통과해야만 진입할 수 있는 배치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현대의 공동주택에서도 관찰되는 공간 구성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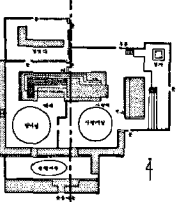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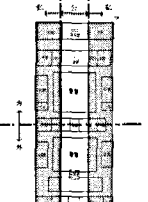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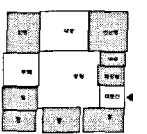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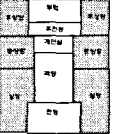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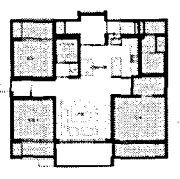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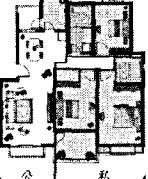
(2) 동선체계

서울의 공동주택 단위평면은 거실 중심적인 공간배치로 인해 입구-복도-침실 및 거실-주방 또는 침실로 이어지는 동선 구성을 보인다. 이는 거실이 세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입구에서 떨어져 침실이 거실보다 입구에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 이는 반가에서 도시형 한옥으로 변화하면서 발생한 중정형 마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선체계와 흡사하다. 입구에 들어서 문간방을 먼저 접한 후 마당과 대청을 통해 침실로 접근하는 동선구조는 마당과 대청이 생활의 중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일부 침실이 출입구에 근접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구성은 현대의 거실 중심형 단위평면에서도 관찰할 수 있으며 동선체계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에 반해 상하이의 공동주택 단위평면은 입구-공적 공간-사적 공간으로 이어지는 동선 체계를 볼 수 있다. 즉, 입구-거실 및 식사실-침실로 이어지는 동선을 통해 사적 공간을 보호하려는 계획 의도가 보인다. 이는 사합원의 동선(입구-중정-당-실)과 이농주택의 동선(입구-천정-객당-실)에서 볼 수 있는 구성체계의 흔적이 현대 공동주택 단위평면에까지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랜 세월동안 유지되어왔던 가족 중심적 사고에 의해 이루어진 문화적 관습과 생활환경이 현대까지 이어져 단위세대 평면구성에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서울의 아파트는 발코니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표 2> 공간배치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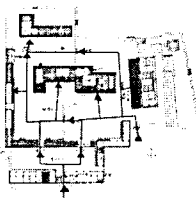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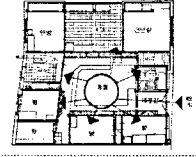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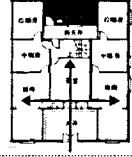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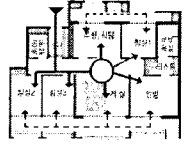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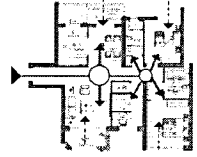
	한국- 공간 배치 변형	중국- 공간 배치 유지
전통 주택	 <p>반가- 공적, 사적공간 구분, 남녀 사용공간 구분</p>	 <p>사합원-공적, 사적공간 구분</p>
근대 주택	 <p>도시형한옥- 공간구분요소 모호</p>	 <p>석고문이농- 공적, 사적공간 구분</p>
현대 주택	 <p>용두동 롯데캐슬퍼렌체(2008)- 공적, 사적공간 구분</p>	 <p>御景豪園(2008)- 공적, 사적공간 구분</p>

■ 사적공간 □ 공적 공간

6) 강부성 외,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서울, 1999, p.333

구성을 보인다. 이는 각 실별로 개별적인 발코니를 갖는 상하이의 단위평면과는 다른 형태로 중심 동선 외에 별개의 동선을 만들고 있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되면서 이러한 발코니를 실의 확장용도로 이용되어 발코니에서 형성되는 동선의 사용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기본적인 형태와 기능 측면에서 반가와 도시형 한옥에서 볼 수 있는 뒷마루와 흡사한 형태와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간은 세대에서 동선과 공간 활용의 다양성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표 3> 동선체계 특성 비교

	서울- 마당 중심형	상하이- 직선형
전통주택		
	반가- 순환형 동선 체계	4진 전통 사합원- 직선형 동선 체계
근대주택		
	도시형 한옥- 마당 중심형 동선 체계	석고문이농(公順里)- 직선형 동선
현대주택		
	신길동 신길자이(2008)- 거실중심형	仁恒河濱城三期(2009)- 직선형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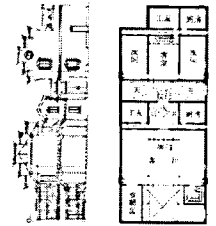
3.2. 자연환경요인

서울과 상하이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여름과 겨울이 봄, 가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또한 도시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강줄기로 인해 습한 기후 조건을 보이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서울은 상하이보다 위도 상 북쪽에 위치하여 여름에는 습윤 대륙성 기후 조건을 보이고 겨울에는 한랭한 서북풍의 영향으로 추운 기후를 가진다. 이에 반해 상하이는 아열대 기후에 속하고 바다와 접해 있는 지리적 특색에 의해 여름이 덥고 습하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광, 통풍에 유리한 남향을 선호하는 관습이 내려오고 있으며, 이는 전통주택에서 현대 공동주택까지 적용되고 있다.

여름의 남동풍과 일조량 확보를 위해 반가는 마당, 사합원은 중정을 중심으로 북쪽에 건물을 배치하여 남향으로 열릴 수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一, ㄱ자의 장방향 형태의 채와 마당이 쌍을 이루는 형태의 반가는 남향을 주향으로 맞통풍이 가능한 개방형 주택인 반면 사합원은 하나의 중정을 둘러싼 현대로 정방, 청방을 제외하고 남

향을 갖기 힘든 구조여서 직접적인 맞통풍보다는 중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방향 통풍을 이루는 폐쇄형 주택이다.

시대가 지나면서 반가와 사합원이 부지 여건이 한정되고 협소해짐에 따라 도시형 한옥과 이농주택으로 변모하게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구성요소들이 압축되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필요한 실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이 가지고 있는 구성요소가 집약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러 개의 마당을 가졌던 반가는 중정 형태인 하나의 마당으로 변형되었으며, 사합원의 경우 중정의 기능은 객당으로 대체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형 한옥과 이농주택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전통주택에 비해 채광과 통풍에 불리한 구성을 보이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형 한옥은 중정과 대청, 뒷마당을 구성하여 맞통풍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이농주택은 천정과 후천정의 두 개 오픈공간으로 맞통풍을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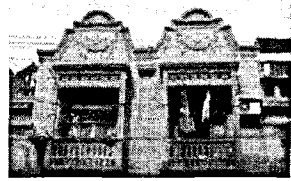
<그림 3> 이농주택 단면, 평면

서울과 상하이의 공동주택 단위평면에서는 여름의 남동풍과 일조에 유리하도록 남향에 거실과 안방이 배치되고, 겨울의 북서풍을 대비할 수 있도록 북향에 서재, 작은방과 주방을 배치되어 있다. 또한,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외기와 두 면에 면하게 거실과 주방을 연계하여 공간을 넓게 배치하였다.

서울과 상하이의 단위 평면상 다른 점은 서울은 상하이의 단위평면에 비해 장방향 형태를 보이며 세대의 중앙에 거실과 주방이 위치해 있다. 상하이의 경우 거실과 주방이 현관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다. 반가와 사합원, 도시형 한옥과 이농주택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전통주택에 비해 중국 전통주택은 세장형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현대 공동주택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이는 서울의 공동주택이 겨울에 많은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인 장방향형 주택으로 진화한데 비해, 상하이의 경우 더운 기후에 그늘을 확보할 수 있는 세장형 구조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난방 방식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바닥 난방을 하는 서울의 공동주택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균일하고 전체적인 난방이 가능하여 환기를 위한 개방성이 보장되는데 반해, 에어 히터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상하이의 경우 보다 폐쇄성이 중요한 구조이다.

두 도시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서울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요철이 적거나 없는 직선형으로, 하나의 발코니에 여러 실들이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반가와 도시형 한옥에서 보이는 뒷마루의 흔적이 현대의 공동주택에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단위 세대 전, 후면에 발코니가 있는 경우가 많아 발코니의 면적이 크고, 새시(Sash) 창호를 설치하여 내부 공간화 하여

내, 외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내부공간의 확장과 함께 외부의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림 4> 사이타이(晒台)

상하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외벽에서 돌출되는 형태가 많은데 이는 빨래 등을 건조하는데 유리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이농주택의 옥상에는 빨래를 건조하기 위한 사이타이(晒台)⁷⁾라는 공간이 있다.

<표 4> 자연환경에 대응한 단위평면

	서울	상하이
전통주택		
	반가(안채)- 뒷마루	사합원- 주요 방 앞 입구공간
근대주택		
	도시형한옥- 뒷마루	신식 이농- 사이타이(晒台)
현대주택		
	래미안 삼성2차(2007)- 발코니	御翠豪庭(2009)- 발코니
현대주택		
	반포동 주공2단지(2008)	仁恒河濱城三期(2009)
	서울발코니 일자형태 모습	상하이 돌출된 발코니모습

3.3. 생활 문화적 요인

(1) 현관

7) 사이타이(晒台): 일광건조대로서 대개 건물의 옥상에 있다.

<표 5> 현관 특성 비교 분석

	서울	상하이
전통주택		
	-반가(안채) 기단과 댕돌을 이용하여 신을 벗는 공간형성 -뒷마루를 이용한 편의성 증대	-사합원(정방) 기단을 통하여 위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현관의 기능을 보기 어려움
근대주택		
	-도시형한옥 기단과 댕돌을 이용하여 신을 벗는 공간형성 -뒷마루를 이용한 편의성 증대	-신식 이농 입구의 기능만 있음 -현관으로서의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음
현대주택		
	-용두동 롯데캐슬피렌체(2008) -실내와의 단차를 통한 공간구획	-仁恒河濱城三期(2009) -공간구획이 모호함
	개념도	개념도
	내부	내부

서울의 좌식 문화와 상하이의 입식 문화는 두 도시의 공동주택 단위평면상 차이점을 나타나게 한다. 서울 공동주택의 현관은 반가의 기단과 댕돌, 뒷마루의 성격이 함축되어 있다. 기단이 생성된 이유는 반가를 구성하고 있는 목재를 지반의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실외와 실내를 구획하며, 댕돌을 올려놓아 신을 벗어두는 공간을 구분하는데 있다. 방의 바닥이 지반보다 높은것은 아궁이를 이용한 온돌난방방식의 구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뒷마루가 형성되어 신을 신고 벗을 수 있는 공간이 구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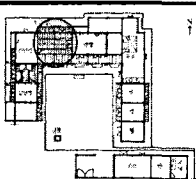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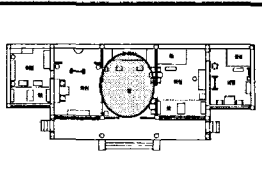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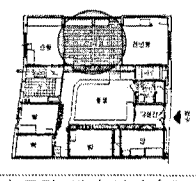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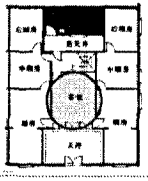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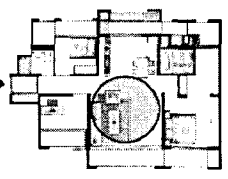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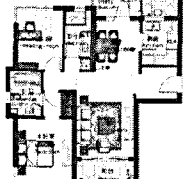
이는 방과 방을 연결해 주는 통로의 역할과 함께 신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현대의 공동주택에서 적용되어 현관과 실외를 바닥의 높이 차이로 구획하여 세대 내부로의 진입공간으로서 입구의 기능과 함께 신을 신고 벗으며 수납하는 공간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의 형성은 실내에서 맨발로 생활하는 생활습관에 기인하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여, 신체와 직접 접하는 공간인 실내의 바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상하이의 공동주택에서는 입식문화에 의해 세대 내에서 실내화를 착용하고 생활을 한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의 현관과는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상하이의 현관은 거실과 식당으로 형성된 공적공간에 형성되어 있으며 구획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은 사합원과 이농주택에서 볼 수 있는 생활양식과 공간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합원은 실외공간인 중정에서 와실에 진입할 때 당을 걸쳐야만 와실로 접근하게 되어있다. 또한 와실에 진입하여 침대에 누울 때까지 신을 벗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을 벗어두는 공간이 불필요하다. 이농주택 역시 외부에서 와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객당과 당을 거쳐 접근하도록 되어있고, 신을 착용한 상태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을 벗어두는 공간이 불필요하다. 현대에 이르러 생활수준의 향상에 의해 상하이의 공동주택은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생활을 하게 되어 신을 벗어두는 공간이 있는 현관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공동주택처럼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않고 장식적으로만 구획되어 있다. 이는 오랜 세월 유지되어온 생활 문화에 의해 거주자가 현관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 하기 때문이며, 현대 상하이 공동주택의 현관은 신을 벗어두는 공간보다는 장식적인 요소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시야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경향을 보인다.

(2) 거실

거실은 주거생활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넓은 공간으로, 휴식, 식사, 가사, 육아, 사교 및 옥외와의 연결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공간이다. 서울과 상하이 공동주택 거실의 차이점은 세대 내의 배치에서 나타난다. 서울

<표 6> 거실 특성 비교 분석

	서울	상하이
전통주택	 <p>-반가(안채) 마당과 근접 -방과 방사이에 위치</p>	 <p>사합원(정방) 동선의 시작점에 위치</p>
근대주택	 <p>-중정과 근접, 방과 방사이에 위치 -도시형 한옥(연립형)</p>	 <p>이농주택 동선의 시작점에 위치</p>
현대주택	 <p>-보라매 이-원한세상(2007) -동선의 중심, 방과 방사이에 위치</p>	 <p>-仁恒河濱城三期(2009) -동선의 시작점에 위치</p>

공동주택의 거실은 세대의 중심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주방, 식사실과 연계되어 넓은 공간으로 형성되어 일조와 통풍에 유리하고 개방감이 크다. 또한 방과 방 사이에 배치되어 있어 복도의 기능을 함께 수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선의 중심 공간으로서 거주자의 이용 빈도가 높다.

상하이 공동주택의 거실은 현관에 치우쳐 동선의 시작점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가족모임과 손님접대 등의 공적 공간과 외부로부터 사적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으로 나뉘며, 이는 사합원과 이농주택에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합원과 이농주택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에 사적 공간을 배치하는 구성을 보인다. 이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분리하여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가족활동의 시작을 공적공간에서 시작하게 하여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좋게 하는 역할을 한다.

(3)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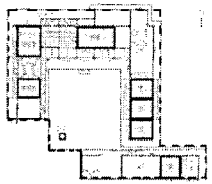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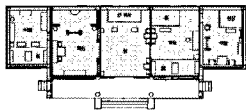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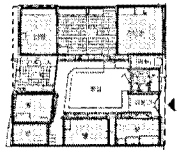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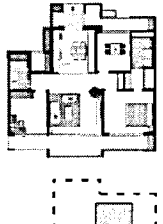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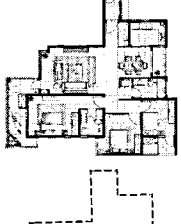
서울 공동주택에서 주침실은 부부의 취침공간일 뿐 아니라 가족의 단란, 접객, 식사의 장소로 사용되는 등 복합적인 특징을 나타내며 거실 다음으로 위계가 높은 공간이다. 현대에 이르러 부부의 사생활이 중요시 되면서 주침실은 개별화, 독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별도의 화장실, 드레스 룸, 파우더룸 등의 개별 공간이 배치되고 있어 면적이 넓다. 과거에도 주침실은 다른 침실에 비해 넓은 면적을 점유한다. 반가의 안채 평면에서 살펴보면 안방과 건넌방의 면적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방의 면적보다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도시형 한옥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같다. 반면 사합원 정방에서 조당, 와실과 이방, 그리고 이농주택에서 상방들의 면적을 비교해보면 한국에 비해 면적의 차이가 크지 않다. 현대 공동주택 단위평면에서 김민규(2005)에 의하면 서울과 상하이의 개별 침실 간 면적 분포도 차이를 보면 주침실, 부침침, 침실의 면적분포는 서울이(46:28:26), 상하이(41:32:27)로써 한국의 안방은 중국의 주침실에 비해 주호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⁸⁾

상하이 공동주택에서 주침실은 부부가 주로 생활하는 개별화된 공간의 특징을 보인다. 서울 공동주택 주침실의 복합적 기능과 달리 주침실에서 가족의 단란, 접객 등 가족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거실에서 가족이 모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난방 방식에 의해 나타나는 공간 활용 방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의 공동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들에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거주자는 방에서 주로 생활하는 반면, 상하이의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춥지 않은 기후조건과 거주자가 겨울철 실내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생활하는

8) 김민규, 한·중 집합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p.50

생활방식으로 인해, 가족 모임이 거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공동주택의 안방은 복합적인 기능으로 인하여 큰 면적을 점유하지만 상하이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실의 면적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서울의 공동주택의 부침실은 상하이의 공동주택에 비해 면적이 작다. 이는 입식문화에 의해 침대 등의 입식가구의 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1가구 1자녀”⁹⁾ 정책으로 3인 가족구성이 보편화되어 자녀의 방에 더 큰 비중이 실린 점도 한 원인이다. 이는 가장(家長)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가정생활이 자녀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주침실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표 7> 침실 특성 비교 분석

	서울	상하이
전통주택	 반가(안채)-방 면적 차이 큼	 사합원(정방)-방 면적 비슷함
근대주택	 도시형한옥-방 면적 차이 큼	 이농주택-방 면적 비슷함
현대주택	 신길동 한화꿈에그린(2008)	 金地未未來(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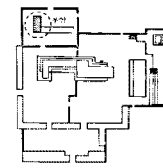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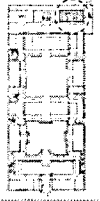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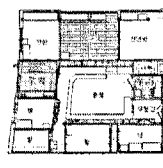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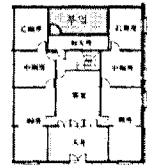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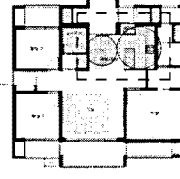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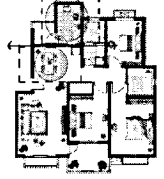
(4) 주방 및 식사실

서울 공동주택은 보편적으로 주방과 식사실이 하나의 공간으로 배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동선의 중심공간인 거실과 연계가 되어 거주자의 동선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오랜 세월 유지해온 음식문화가 현대화 과정에서 변화하면서 발달한 특징으로 추측된다. 국과 밥으로 구성된 주식과 여러 가지의 부식으로 구성되는 한국의 오랜 식습관은 타국의 음식문화에 비해 사용되는 식기의 수가 더 많으며, 이러한 특징은 실을 배치함에 있어 주부의 식기 운반 동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9) 계획생육(計劃生育)정책: 1가구 1자녀를 원칙으로 1976년부터 실시한 정책으로 '늦게 결혼하여 늦게 출산하여 적게 낳아 잘 기르자(晚婚晚育, 小生優生)'는 기본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서울 공동주택은 주방과 식사실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하고 거실과 연계되는 개방감 있는 넓은 공간으로 구현하는 것이 단위평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식생활 문화의 변화에 의한 결과로 추측되어 지는데, 독신자 및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외식산업이 발전하고 주방은 조리의 목적보다 삶의 영위가 주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인식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방은 세대의 중앙에 배치되었고 거실과 연계되어 공용공간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넓은 공용공간은 주거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높이게 되었다.

<표 8> 식문화에 대응한 단위평면

	서울-주방 일체형	상하이-주방 독립형
전통주택	 반가(안채) 부엌이 별도로 위치	 사합원 후면에 배치된 후조방에 위치
근대주택	 도시형 한옥 안방과 인접한 곳에 위치	 이농주택 가장 뒷면에 배치
현대주택	 응두동 롯데캐슬퍼런체(2008) 주방·식사실 일체형	 浦東御景豪園(2008) 주방·식사실 독립형

이에 반해 상하이의 단위평면에서는 주방과 식사실이 독립되어 있는데, 이는 주거생활에서 식사를 중요한 행위로 인식하는 중국인들의 생활 습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상하이의 공동주택에서 주방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고 물청소를 할 수 있는 바닥마감과 외기에 면하여 있는 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는 기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문화로 인해 물청소를 할 수 있는 바닥마감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며 전통주택 사합원과 이농주택에서도 부엌이 평면의 가장 뒤쪽에 배치되어지고 있다. 또한 주방이 별도로 구획되어있지 않는 단위평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산업화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인해 가족구성이 핵가족화 되면서 외식문화가 발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정에서 간편한 음식만을 조리하거나 요리를 하지 않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4. 결론

주거는 인간의 생활을 담는 거주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집합체로서, 거주자의 생활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주거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전통 주거에서 나타나는 생활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시대 구분에 따른 단위평면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주거양식 요인에 따라 단위평면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공동주택은 세대의 중앙에 위치한 거실과 주방, 식사실이 배치되는 공적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 구성과 동선체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향을 기준으로 장방형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반해 상하이 공동주택은 거실과 식사실로 이루어진 공적공간을 세대 진입부에 배치하여 세장형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공동주택과 같이 공적공간을 중심으로 공간구성과 동선체계가 형성된 경우는 사적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고 개방된 공간을 중앙에 배치하여 개방성을 갖고, 일조 확보와 통풍에 유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세대 중앙에 공적공간이 위치함에 따라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상하이 공동주택과 같이 공적공간을 세대의 진입부에 배치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에는 용이하나 단위평면에서 넓고 개방된 공간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세대내의 일조와 통풍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둘째, 자연환경 측면에서 단위평면을 보면 서울의 공동주택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대응하여 남향으로 큰 창이 설치된 거실과 주침실을 배치하고 북향에 주방과 부침실을 배치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상하이의 단위평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장방형 형태의 서울 공동주택의 단위평면이 세장형 형태의 상하이 공동주택 단위평면보다 일조와 통풍에 더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닥 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서울의 공동주택과 달리 공조식 냉·난방 형식을 사용하는 상하이 공동주택에서는 실의 면적이 보다 균등하게 할당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생활문화 요인에 의한 비교분석에서 서울과 상하이는 좌식과 입식이라는 문화적 차이점이 평면구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좌식 문화인 서울 공동주택의 현관은 반가의 기단과 댕돌, 뒷마루의 기능이 함축되어 실외와 실내를 구획하고, 신을 벗어두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신체와 직접 접하는 실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이에 반해 입식 생활문화인 상하이의 공동주택 현관은 장식적인 요소와 외부로부터 시야를 차단하는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점은 음식문화에서 나타나며 이는

주방과 식사실의 배치에서 알 수 있다. 서울의 공동주택의 주방을 보면, 사용되는 식기의 수가 많아 주방과 식사실이 하나의 공간에 배치되었고, 거실과 연계하여 거주자의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기름에 조리하는 음식이 많고, 입식 문화인 상하이 공동주택의 주방은 별도로 구획되고, 물청소를 할 수 있는 바닥마감과 외기에 면하여 있는 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평면상 가장 뒤쪽에 배치되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서울과 상하이 공동주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같은 유교 문화권임에도 다른 자연환경과 생활관습에 따라 변화하고, 체계화되어진 산물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례가 서울과 상하이의 전체 주거문화를 모두 대표하지는 않지만, 서울과 상하이의 환경적 특징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시대별로 선정하고 비교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들 공동주택을 생활환경에 따른 단위세대 특성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서울과 상하이의 주거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두 도시 주거유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현대 주택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강인호 외 1인, 주거의 문화적 의미, 세진사, 서울, 2000
2. 손세관, 넓게 본 중국주택, 열화당, 서울, 2002
3. 吳煥加, 中國建築·傳統與新統, 東南大學出版社, 2003
4. 沈福熙 外, 建築藝術風格鑒賞-上海近代建築掃描, 同濟大學出版社, 2003
5. 曹焜, 開埠后的上海住宅,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4
6. 婁承浩, 薛順生, 老上海經典建築-上海老建築8書, 同濟大學出版社, 2003
7. 丁俊清, 江南民居, 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08
8. 김경환, 한·중·일 전통도시주거의 외부공간에 관한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9. 김영하·조성학, 공동주택 단위평면 계획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권 2호, 2008
10. 박철진, 1930년대 경성부 도시형한옥의 상품적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1. 배용성, 한·중·일 '口 자형 전통주택'에 나타난 실내공간의 동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2. 신경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작품주택에 나타난 전통성의 현대적 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3권 1호, 2003
13. 진옥성, 중국문화, 중국의 어제와 오늘, 세종출판사, 부산, 2008
14. 한필원, 중국 북경 사합원의 공간구성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11호, 1997
15. 周凌, 亞洲傳統民居中的線性居住模式, 人聚環境與建築創作理論青年專家學術研討會 발표논문, 1995
16. 중국포탈사이트: <http://www.baidu.com>
17.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논문집수 : 2009. 11. 30]

[1차 심사 : 2009. 12. 22]

[게재확정 : 2010. 02. 05]